

## 우로코의 집과 전망 갤러리

우로코의 집은 고베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이진칸(외국인의 집) 중 하나로 고베의 이진칸 건축물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2층 높이의 목조 건축물이지만, 원통형을 한 성처럼 3층 높이의 탑이 있습니다. 이 탑으로 이 집은 지역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. 외장을 덮고 있는 생선의 비늘(일본어로 ‘우로코’)을 닮은 몇 천장의 조개껍질 무늬의 슬레이트 기와에서 우로코의 집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 기법은 독일 일부 지역의 전통적 건축 방식이지만 메이지 시대(1868~1912) 후기에 이 집을 지었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너무 생소한 방식이었습니다.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이 집은 1998년 일본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효고현의 ‘근대 주택 100선’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. 1968년까지 사람이 주거하였고 1977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최초의 이진칸이 되었습니다. 현재 이 건물은 정기적으로 내용을 변경해가며 역사적 내용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.

입구는 중앙에 배치된 탑의 기초 부분에 위치합니다. 계단이 있는 중앙 홀에서 왼쪽으로 넓은 응접실이 있습니다. 그 방에는 난로를 가운데 두고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 앞에는 식당이 있고 현재는 원래 집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박물관급의 앤틱한 물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앤틱한 사이드보드와 유리 캐비닛에는 유럽 도자기 및 식기로 구성된 멋진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벽의 한면에는 초기의 모더니즘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은 수채화가 걸려 있습니다. 1층에는 그와 더불어 실용적인 방과 응접실 및 부엌이 딸린 도우미를 위한 건물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. 2층 도서관은 넓은 선룸(sun room)으로 이어지고 그곳에는 탑을 닮은 반원형 모양의 작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섬세한 삼각형의 장식 무늬인 트레이서리가 설치된 창으로 고베시와 항구의 멋진 모습이 펼쳐집니다. 그 외에도 응접실과 2개의 침실이 있습니다. 작은 쪽 침실은 20세기 초기 젊은 남성의 방을 재현하여 앤틱한 스포츠 용품을 갖추고 있습니다. 2개의 침실을 연결한 짧은 실내 발코니가 있고 그곳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볼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옷장이었던 장소에는 흥미를 끄는 17세기 일본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2층 뒤편에는 1층 키친 뒤에 위치한 도우미 방이 있습니다.

우로코의 집 옆에는 1982년에 개관한 3층 높이의 전망 갤러리가 있습니다. 현대적인 콘크리트 구조의 갤러리는 우로코의 집 자체를 모델로 한 탑과 생선 비늘 모양의 타일이 있습니다. 2층 벽에는 19세기 바르비종파 화가 콩스탕 트루아용(Constant Troyon)의 회화, 앙리 마티스(Henri Matisse), 모리스 드니(Maurice Denis), 모리스 윌트릴로(Maurice Utrillo), 장 뒤뷔페(Jean Dubuffet) 및 20세기 전반부터 중반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유럽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다른 층은 현대 아티스트들을 위한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. 3층의 커다란 창밖으로는 고베시의 어떤 이진칸보다도 광활하게 내려볼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지고 고베 시가지, 오사카 항, 아와지 섬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. 우로코의 집과 전망 갤러리는 우로코 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